

# 한여름의 내 글쓰기를 위한 책임기

## 작가도 부도를 낸다... 읽지 않으면 쓰기도 어려워

한승원

소설가

사흘 동안만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누군가가 그랬다.

정말 나는 입에 가시가 돋혀 있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곤 한다. 택시를 타고 가다보면 만날 수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도 많지만 어떤 운전자들은 가시돋힌 소리로 끼어드는 차를 향해 민망한 욕설들을 마구 퍼붓는다.

골목길을 지나다보면 자기의 자식들을 향해 거친 말을 함부로 퍼붓는 아낙들이나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기의 친구를 향해서 말인지 욕설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뱉어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약수터엘 가다보면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 여행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기차나 비행기 안에서 화투를 친다. 음식점에서도 그렇고 술집에서도 그렇다. 피서지엘 가도 그렇다. 여관방이나 호텔방을 빌어서 그 짓을 하기도 한다. 좌우간에 틈만 있으면 그 짓을 하는 것이다. 아마 그런 사람들의 입에는 가시가 돌아도 왕가시가 돋고 그것은 틀림없이 강철같이 단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면 끔찍스럽다. 진저리를 치면서 성난 얼굴로 나를 돌아보곤 한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히히덕거리다가 문득 박차고 일어나곤 한다. 텔레비전은 사람들의 꼴을 텅 비게 만든다.

나는 우리집 아이들이 쓸데없는 만화영화나 코미디프로를 보곤 하는 것을 싫어한다. 언젠가 가족들한테 이러한 선언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나 앞으로 텔레비전 오락프로 스포츠프로는 절대로 보지 않을 거야. 뉴스나 다큐멘터리 좋은 것, 영화 그럴 듯한 것을 빼놓고는 코미디나 쇼프로나 흥드라마 연속극 따위도 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시덕거릴 시간에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십대 오십대에 들어선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남에게서 들은 풍월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절벽 같다. 누군가가 그랬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책을 읽지 않는단다. 그럴지도 모른다. 날마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피고 아는 체하고 떠돌고 휘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언젠가 마음

가라앉히고 주저앉아 책을 읽을 것인가. 책 읽지 않은 사람들한테 나라 살림을 맡기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한심한가.

사십대 오십대에 들어서면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운동을 해야 한다. 기초체력만을 가지고는 버티기 어려우므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아 먹지 않으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그 나이가 된 사람들은 정신적인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정신적인 운동이 독서다. 독서가 정신적인 보양이다. 나는 내 머리에 웅이 박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기 욕심을 부리곤 한다.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소문난 잔치에 가지 말라고 일러주셨었다. 그 잔치는 소문만 그럴듯하게 났을 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지혜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덤으로 얻곤 한다.

나는 베스트셀러라는 것들을 일부러 읽지 않았다. 구경거리가 많다고 환장들을 하고 몰려가곤 하는 곳에는 일부러 가지 않았다. 해수욕장이라는 데에도 나는 그래서 한번도 간 일이 없다. 나는 피서를 위하여 내 집을 버리고

**나의 소설쓰기는 일종의 과도한 소비이고 지출이다. 그 소비와 지출을 위하여 거기에 알맞는 정도의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나는 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책임기는 나의 작가로서의 부도를 막아준다. 떠자리 위에 드러누워 책을 읽으며 나는 더위를 잊을 것이다.**

고향바다로 가거나 낯선 한적한 시골로 가거나 절이 있는 산골로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한창 미친듯이 움직이는 명절이나 휴가철이나 연휴의 대목에는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칩거한다.

나라 안 사람들이 너도나도 얼싸덜싸 움직이는 때에 덩달아 함께 덜렁덜렁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미련스러운 일 중의 미련스러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천방지축 뛰어다니곤 한다.

그렇게 몰려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길에서 목숨을 잃곤 하는가. 가뜩이나 자동차들을 너도나도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된 뒤로는 그런 때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고향엘 가되 명절에 가지 않는다. 연휴 때에 산천경계를 구경하지 않는다. 하기는 그 편리하다는 자동차라는 것이 없으니 가족들을 싣고 움직일 수도 없다. 누군가가 그랬다. “왜 자동차를 가지고 살지 않소?” 나는 그랬다. 나같은 사람까지 자동차를 가지게 되면 서울 안의 모든 거리는 걸어다니는 것이 더 빠르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삼십대 중반쯤에 꼭 한번 가족들하고 함께 고향의 바다쪽으로 가본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얼마나 후회를 했었는지 모른다. 무덤기는 하고 길은 막히고 사람들은 붐비었다. 계획했던 것보다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였다. 배는 고프고 피곤하기는 한데 내가 나서서 천막을 치고 밥짓는 일을 돕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며칠 동안의 움직임은 피서가 아니고 더위를 먹으러 간 것이었고, 쉬러 간 것이 아니었고, 고생을 하러 간 것이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절실한 말인지 그때 그 여행에서 알았다. 내가 남들이 얼싸덜싸 움직이는 때에 덩달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때의 경험 때문이다.

좌우간에 피서지마다 차들이 득시글거리고 천막을 칠 자리도 없고, 여관이나 호텔마다 붐비고, 미어터지고 하는 속에서 무슨 피서가 될 것인가. 약과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그런 붐비고 미어터지는 쪽을 피하여 한적하고 조용한 곳들을 찾아가는 모양이다. 그러다보니 삼천리 금수강산 모든 곳이 이제는 도회지 사람들 등쌀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으깨어지고 짓뭉그러지게 된다고 한다.

대단히 건방지고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나는 그런 때에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집안에서 그 명절이나 휴가철이나 연휴 대목을 걸렀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나를 고맙게 생각하곤 했다.

이 여름의 휴가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죽어갈 것이다. 왜 모두들 그렇게 천동벌거숭이들처럼 허둥대는 것인가.

여름철 피서를 나는 명청스럽게 집안에서 하곤 한다. 팬티 하나만 입고 세수대야에 물을

떠다가 놓고 거기에 발 담그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이열치열이다. 새벽 한두 시간쯤 글을 쓰고 아침 일찍이 뒷산엘 갔다가 온다. 땀흘린 몸에 물을 끼얹는다. 글 쓰는 것과 책을 읽는 것처럼 좋은 피서는 없다. 아침 나절 시원한 때에 한두 시간쯤 선풍기 틀어놓고 글을 쓴다. 이후로는 떠자리 위에 드러누워서 책을 읽는 것이다.

나는 어떤 책이든지 누워서 읽는다. 내 머리맡에는 늘 책이 있다. 노자가 있고 장자가 있다. 시경도 있고, 寒山詩도 있고, 이태백, 도연명, 굴원, 두보, 백낙천도 있고, 불경들도 있다. 채근담도 있고, 범구경도 있다. 소설 쓰기에 필요한 자료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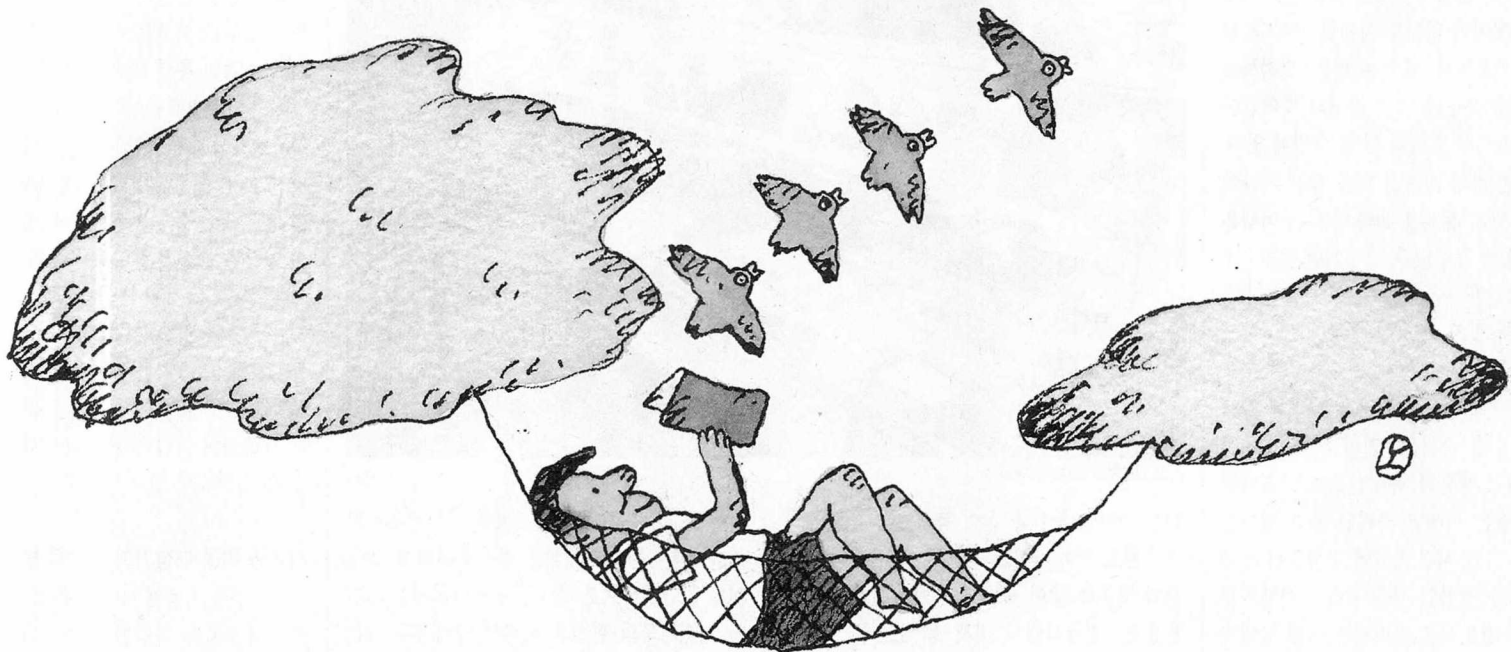
꼭 한번 읽고 싶었는데 읽지 못하고 있는 소설들을 한증막처럼 더운 그때에 읽는다. 누워서 읽기도 하고, 마당의 목련나무와 감나무의 그늘 밑에서 읽기도 한다.

남의 작품을 읽어야 한다. 물론 좋은 작품들을 골라서 읽는다. 내가 근래 들어 읽은 것들은 「하늘의 뿌리」(로맹게리) 「백년동안의 고독」(마르케스) 「강풍」(아슈트리아스) 「고요한 돈강」(미하일 솔로호프) 「희랍인 조르바」(카잔차키스) 같은 것들이다. 그것들은 끝까지 잘 읽은 것들이다. 「토지」(박경리)의 제 2부까지를 읽었다. 「태백산맥」(조정래)의 제 3권까지를 읽었다. 「겨울골짜기」(김원일)도 읽었다. 유현종의 「들불」도 읽었다. 「장길산」(황석영)은 제 2권까지를 읽었다. 그 이후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읽을 수가 없었다.

벽초의 「임격정」을 나는 3권까지 읽다가 말았다. 떠도는 그 후한 청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옛사람의 소설이었다. 필요에 따라서 북한으로 가서 작고한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을 읽었다. 그것도 결코 좋은 소설은 아니었다. 역시 그들의 언어감각은 한글세대의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나는 절망을 하는 수가 많다. 이 작가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쓰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반면에 그들의 실패를 확인하면서는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나는 나와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읽되 그 작품의 뛰어난점과 명성을 질시하지 않고 험뜯지 않는다. 보다 냉정하게 읽으려고 애쓴다.



일러스트레이션 / 노희성

정말로 좋다 싶은 것은 주변 사람들이나 후배들한테 권한다. 부러움 없는 박수를 보내려고 애쓴다.

한 작가가 동시대의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는 것은 그 작가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남의 작품을 읽으면 그것을 읽는 작가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어떤 힘을 활성화시켜준다. 그것은 대단히 이로운 일이다. 그로 인하여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분출하게 되는 것이다.

한데 그 작가가 이미 이룩해놓은 세계를 파괴하려고 하다보면 여러가지로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읽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나는 상관없이 동시대 작가들의 소설을 읽고 시들을 읽는다.

얼마전부터는 불경들을 읽었다. 「화엄경」을 읽고 「법화경」을 읽고 「조론」을 읽었다. 그 경의 해설서들도 읽는다.

이 해 여름에도 나는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어낼 것이다. 먼저 내가 쓰고 있는 무지하게 긴 소설의 자료들을 읽어야 한다. 우리 근대사와 관련된 중국역사를 읽어야 하고, 일본 근대사를 읽어야 하고, 미국 선교사들의

국내 활동에 대하여 더듬어야 한다.

동학관계 자료들은 소설들보다 더 재미있다. 1894년을 전후한 역사는 그 자체가 소설이다. 하나도 허구를 동원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만 기술하여도 소설보다 훨씬 재미있도록 되어 있다. 어떤 작가가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사건들을 엮어 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기기묘묘한 인물들을 설정하여 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책을 독파해내려고 할 때면 이렇게 말부터 앞세우곤 한다.

“나 한달 안에 이 책 요 책을 다 읽어 치울 거야.”

나와 삼십년을 함께 살아온 내 집사람은 내가 왜 그렇게 말부터 앞세우는가 하는 것을 잘 안다.

나는 매우 마음이 약하다. 한번 하려고 했던 일을 해내지 못하고 중도에 말아버리곤 했다. 나는 내가 매우 우유부단하고 심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나에게 명예를 쫓우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언을 하듯이 지껄인 말이 식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엉덩이를 철썩철썩 치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소나 말처럼 부린다. 사막 위의 낙타처럼 뜨거운 모래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한번 손에 든 책은 끝까지 읽어낸다. 그렇게 읽어가기 시작하면 재미가 붙고, 그 재미 때문에 더위도 잊게 되고 시간이 가는 것도 잊게 되는 것이다.

텔레비전 앞에서 시시덕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허전해진다. 내가 미워진다. 바보같아진다. 허접쓰레기같아 보인다. 그렇지만 글 한두 페이지라도 읽고 냇을 때 그렇게 한 내가 대단해 보인다. 아내 앞에서 당당해진다. 자식들 앞에서도 떳떳해진다.

“여보, 나 이것 다 읽어냈어.”

“애들아, 나 이것 다 읽어치웠다.”

나는 어느날 아내와 자식들한테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곤 한다. 아마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을 정복하고 나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를 터이다. 물론 그것은 내가 한편의 소설을 다 써내고 나서 외치는 것이나 비슷한 소리의 크기이다. 「노자」 「장자」 「유마경」 「무문관」을 읽고나서도 물론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다.

나의 소설쓰기는 일종의 과도한 소비이고 지출이다. 그 소비와 지출을 위하여 거기에 알맞은 정도의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나는

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작가의 도산은 작가의 생명을 끝나게 한다. 나는 내 입과 머리 속에 가시가 돋지 않게 하기 위하여 틈나는대로 책을 읽는다. 이 한여름 무더위 때문에 글을 쓸 수 없을 때 나는 띠자리 위에 드러누워 책을 읽으면서 더위를 잊을 것이다. 그 책 읽기는 나의 작가로서의 부도를 막아줄 것이다.

시간종합정보지

# 광고문의

베스트셀러 진입은  
광고전략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광고도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732-1431~3  
FAX 722-1174